

報 道 參 考 資 料

題目 : 브라질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主要 內容

□ 재정경제부(정덕구차관 주재)는 최근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및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1.14(목) 14:00

◦ 장 소 : 재정경제부 중회의실

◦ 참석기관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TRA, 무역협회, KIEP, KIET, 금융연구원 등 10개기관의 고위간부 및 임원

□ 동 회의에서는 브라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중앙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의회간의 협조가 중요하며

◦ 우리 금융기관의 대 브라질 exposure 및 무역등 경제교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 사태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 브라질 위기가 더 심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했음

- 특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세계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브라질 정부는 물론 미국·IMF등에서도 사태의 조기수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따라서 정부는 관계기관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브라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아시아등 신흥시장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특히 브라질의회회의 특별회기가 끝나는 1/29까지 약2주일간 매일 아침에 실무대책반(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를 통해 상황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첨부 : 브라질 위기 현황과 전망]

브라질 위기 현황과 전망

1. 현 황

□ 98.11 IMF지원으로 안정세를 일부 회복하던 브라질경제가 재정개혁안 처리지연, 미나스제라이스 주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1/6)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

○ 11월 IMF와의 합의이후에도 IMF합의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의구심으로 계속 외국자본이 유출

* 98.8월~현재까지 410억불정도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추산

* 외환보유고 : 98.4) 738억불→98.9) 449억불→98.12) 362억불*

(* IMF 12월 지원금 93억불 제외)

* 외채(98.10) : 2,305억불

(단위 : 억불)

중장기외채			단기외채			총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818	1185	2003	42	260	302	2305

○ 주가 하락

98.12말	99.1.4	1.7	1.11	1.12	1.13
6284	6942	6781	6403	5916	5617
	(2.31%)	(△2.5%)	(△5.6%)	(△7.6%)	(△5.1%)

* ()는 전일비 변동율

○ 환율은 관리변동환율제도(Crawling Peg)로 인해 변동폭은 제한되어 있으나, 절하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

- 1/13 브라질 정부는 일일최대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달러당 1.12~22레알→1.20~1.32) 사실상의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

- 1/13 환율은 거래상한폭인 1.32레알/달러로 거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프랑코 중앙은행 총재 사임(1/13)

□ 중남미경제의 40%를 점하는 브라질의 위기심화는 곧바로 멕시코등 남미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주가 : 멕시코등의 주가가 브라질과 함께 동반 하락

- 전년말대비 1/12현재 멕시코($\Delta 12.6\%$), 알젠티($\Delta 7.9\%$), 칠레($\Delta 5.6\%$), 베네주엘라($\Delta 9.2\%$)등

○ 남미물에 대한 유통가산금리가 크게 상승

- 아시아물은 상대적으로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이나 시차를 두고 가산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

- 특히 전체 Emerging Market 위험을 hedge하는데 사용되어 온 외평채는 여타 아시아 국가채권보다 가산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bp)

	아시아국가			중남미국가		
	한국	태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
12.31	375	375	620	1135	514	580
1.6	350	330	570	1102	481	578
1.8	355	340	580	1157	480	572
1.11	360	320	575	1197	510	591
1.12	370	330	550	1378	571	663
1.13	410	350	570	1537	618	816

□ 중남미에 대해 총수출의 20%, 약350억불의 민간투자자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경제는 브라질의 영향을 상당폭 받고 있음

○ 최근 달러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일 상승하던 미국 주가도 최근 하락

* Dow지수 98.12달)9181→1/7)9538→1/11)9520→1/12)9475→1/13)9349($\Delta 1.32\%$)

□ 유럽국가들의 주가도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 전체가 브라질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

2. 이번 금융·외환시장 불안의 원인

□ 이번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99.1.6 브라질에서 3번째로 큰 州인 Minas Gerais에서 대 브라질 연방정부 채무 134억불에 대한 moratorium을 90일간 실시하겠다는 데서 발단

○ 실제로 동 주 정부의 90일간 moratorium으로 실제 지불이 유예되는 금액은 2억불 정도에 불과하나,

- 최근 사회복지 개혁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 과거 moratorium의 경험이 있는 브라질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주 정부의 moratorium 선언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브라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실추

□ 최근 수주간 브라질 경제의 기초여건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 그동안 개혁과 채무상환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번 주정부 moratorium 선언으로 불안감이 증폭되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임

< 주요 경제지표 (자료 : 99. 1 IMF) >

	'97	'98	'99	2000
○ 성장률(%)	3.2	0.5	△1.0	3.0
○ 물가상승률(%)	4.3	2.0	2.2	2.2
○ 재정기초수지 (대 GDP %)	△0.3	0.5	1.8	2.0
○ 경상수지(억불) (대 GDP %)	△333 (△4.1)	△345 (△4.4)	△260 (△3.6)	△257 (△3.6)

3. 전 망

- 브라질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
 - 99.1.13 카르도스 브라질 대통령은 국내외 채무이행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 99.1.12 브라질 27개주중 18개주 지사들이 회합하여(i) 법률준수와 대연방정부채무의 상환 약속, (ii)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조화 강화,(iii) 의회계류중인 사회보장등 개혁관련 법률의 신속한 통과에 합의
 - 의회의 재정개혁 지연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98.12.30 대통령령으로 GDP대비 0.7%에 달하는 증세 및 지출삭감 방안을 마련(99.1.13 의회가 동 방안을 승인)
 - 신임 중앙은행총재 Francisco Lopes(전부총재)도 IMF와 G-7의 지원과 함께 현 350억불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합쳐질 경우 700억불에 달하는 바, 투기적 공격으로부터 레알화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따라서 브라질 사태는 ① 브라질 중앙정부와 주정부·의회등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의지와 집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②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임
 - 1/13 루빈 미재무장관도 브라질 당국의 신뢰성 있는 정책이행을 촉구하고 브라질 사태를 위해 IMF G-7 및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강조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브라질에 대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exposure는 45억불 수준

* 은행(4억불), 투신사(33백만불), 종금사(22백만불)등임
(백만불)

구 분	합 계	대출금	유가증권	기 타 ^{1/}
은 행	397	45	64	288
투 신	33	-	33	-
종 금	22	-	22	-
합 계	452	45	119	288

1/ 매입외환, 해외예치금 등

□ 브라질과의 교역규모 :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내외

○ 대브라질 직접투자는 잔액기준으로 1.4억불 정도

	1997년	1998년(1~11월)
대남미수출	86.6억불(6.4%)	81.6억불(6.8%)
· 대브라질	17.1억불(1.2%)	16.7억불(1.3%)
대남미수입	40.8억불(2.8%)	20.3억불(2.4%)
· 대브라질	12.4억불(0.8%)	6.5억불(0.7%)

()는 우리나라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브라질과의 교역 및 자본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브라질 사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만반의 대비가 필요

○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기관 실무대책반을 운영

< 참 고 > IMF의 對브라질 금융지원 프로그램

□ 금융지원 규모

- IMF와 브라질 정부는 98.11.13일 총 415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합의(IMF이사회 12.2일 승인)
- 98.12월중 총 93억 2,000만달러를 인출하여 외환보유고의 확보를 위해 사용 (IMF자금 47.8억불, 우방국 지원자금 45.4억불)

(단위 : 억달러)

구 분		지원규모
국 가	미 국	50
	E U	75.5
	일 본	10
	기 타	9.5
	소 계	145
국제기관	I M F	180
	세계은행	45
	미주개발은행(IDB)	45
합 계		415

※ IMF 지원금 180억달러중 70%인 127억달러는 SRF자금형태로 지원

□ IMF의 금융지원 조건

○ 재정정책

- 99년에 정부지출 삭감 및 세수확대 규모를 235억달러(GDP의 3%) 확보
- 기초 재정수지 목표 : 99년 GDP대비 2.6%, 2000년 2.8%, 2001년 3% 흑자 달성(연방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 모두 목표 흑자 달성)
- 재정의 건전화 도모를 위해 행정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 제개혁 적극 추진
- 재정운영의 감시 강화를 위해 재정책임법 도입
- 국내공공채무의 만기구조 개선, 달러화표시 공공채무 제한

- 98년 현재 60억달러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단기외채를 99년 100억 달러내로 억제

○ 조세정책

-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고 기존의 세수 항목을 줄여 조세행정의 간소화

○ 세수확대

- 현재 0.2%의 수표세(CPMF)를 99년에 0.38%, 2000년과 2001년에는 0.3%로 인하
-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COFINS)을 현행 2%에서 3%로 인상. 또한 지금까지 면세대상이었던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 세율을 적용기로 함
- 월 1,200레알 이하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기금 분담율은 11%로 하고, 월 1200레알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20% 분담, 공무원 연금생활자로부터도 11%의 분담금 징수

○ 환율정책

- 현재의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허용하는 환율제도를 유지하되, 환율밴드폭을 확대

○ 통화정책

-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 억제임. 외환보유고 유지 및 레알화 가치 방어를 위해 신축적인 금리정책을 실시하되, 지속적인 금리인하 단행